

CCI – 면은 안전한 환경 소재임을 계몽

CCI(Cotton Council International : 國際 棉花 評議會)에서는, 면화 소비가 1년 전과 비교하면 10% 정도가 줄었지만, 면은 안전하고 환경에 부드러운 섬유라는 것을 더욱 어필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코튼 인코퍼레이티드(Cotton Incorporated : CI)의 글로벌 프로덕트 서플라이 체인 시니어 디렉터(global product supply chain senior director)는 면의 새로운 가공도 소개하였다.

CCI에 의하면, 세계의 면화 소비는, 2007/2008년도에 1억 2270만 표였는데, 2008/2009년도에는 1억 980만 표로 감소할 것 같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미국의 재배 면적(栽培 面積)도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공장 소비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섬유 산업은 중요하다. 일본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소비지(消費地)로서도 크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여성의 60%가 의복을 구입할 때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70% 이상이 코튼을 좋아하는 소재 중에서도 톱으로 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코튼이 환경 소재임을 앞으로도 계속 계몽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CI의 시니어 디렉터는 새로운 면 소재(綿 素材) 개발 상품으로 ① 면 100%의 흡수 속건 소재(吸水 速乾 素材) ‘위킹 윈도우즈(wicking windows : 모

세관 현상에 의한 흡수 속건성 curtain)'와 탄화 불소 화합물(炭化 弗素 化合物)을 사용한 '트랜스 드라이(Trans-dry)' ② 초발수 소재(超撥水 素材) 'stone denim' ③ 면 100% 내추럴 스트레치(면 100% natural stretch) ④ 터프 코튼(tuff cotton :形態 安定 + 生地 強力 保持) 등을 소개하였다.♣